

# 顯德王후의 昭陵 석물

김 이 순 \*

- I. 머리말
- II. 현덕왕후 무덤의 변천
- III. 폐릉지 출토 석물 분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제5대 왕 文宗(1414~1452)의 妃 顯德王后(1418~1441)의 무덤은 동구릉에 문종 顯陵과 同原異岡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초장지는 경기도 안산 瓦里山이었고 능의 명칭도 昭陵이었다. 현재 소릉은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무덤자리도 불확실하고 석물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소릉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라진 역사를 복원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소릉은 國朝五禮儀가 규범화 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된 능으로, 조선시대에 喪葬禮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선왕릉 석물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실의 무덤은 조성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된 경우가 적잖다. 被葬者가 사후에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 무덤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풍수적인 이유로 천장되기도 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무덤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소릉의 경우처럼 무덤은 물론 능호까지 사라져버린 것은 이례적이다. 현덕왕후의 무덤은 墓制로 조성된 후 왕릉으로 추봉되었지만 이후 폐릉이 되어 무덤의 흔적까지 없어졌다가 다시 다른 능호로 천릉이 되었다. 이렇듯 복잡하면서도 기구한 역사를 지닌 소릉에는 역사적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

\* 홍익대학교 부교수,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도 1 안산시 단원구 소릉 폐루 추정지

안산의 소릉터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있었다. 1차 발굴은 1978년에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했는데, 이는 1976년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이루어진 반월공단 후보지에 대한 유적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1차 발굴 결과, 이곳이 소릉의 폐루지라고 결론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박물관에서 1982년에 2차 발굴을 실시했다. 주변에 일반 분묘가 조성되거나

도굴된 탓에 陵地 자체가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었으며, 玄室의 지하구조물을 찾아냄에도 불구하고 지석을 발견하지 못했고 발굴 유물의 수도 적었기 때문에, 2차 발굴조사에서도 확실하게 입증하지는 못했다. 발굴 지점을 선정한 경위도 주민들의 口傳에 의거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소릉터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 47번지는 1984년에 반월공단 기업의 하나인 일진전기회사 공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sup>1</sup> 추가 조사나 발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도 1).

소릉은 단지 7년 동안만 존재했고 현존하는 유물도 많지 않아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지금까지 폐루지 발굴보고서 2건,<sup>2</sup>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 중 한 쌍의 석호를 소릉 석물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한 글이 있을 뿐이다.<sup>3</sup> 따라서 소릉의 역사적 검토는 물론 소릉터 출토 석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요구된다.<sup>4</sup> 본고에서는 우선 기록문헌을 토대로 현덕왕후 무덤의 조성과정을 살핌으로써 五禮儀가 구체화되고 틀이 잡혀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소릉 석물로 언급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석호 2점과 안산향토사박물관에 소장된 석양과 난간석주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이

1 1984년에 이곳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목내리 산47번지였다. 현재 일진전기 입구에 “棺우물지” 표지석이 있을 뿐이다. 棺우물은 소릉이 폐루될 때 바다에 버려진 현덕왕후의 관이 흘러와 닿은 자리에 이 우물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관우물 바로 옆에 수백 년 된 향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진전기 공장이 들어선 이후 모두 사라졌다.

2 정영호, 「목내리산성 발굴조사보고(단국대학교)」,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반월지구 유적발굴 조사단, 1978); 경희대학교박물관, 『현덕왕후 폐루지 발굴조사 보고서』(경희대학교박물관, 1982).

3 진홍섭, 『昭陵石虎』, 『예림』 I(이화여자대학교, 1968), pp. 34-37; 강우방, 『梨大博物館 所藏 돌 호랑이의魔力』, 『우리 옛 돌조각의 힘: 이화조각정원』(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7), pp. 17-23.

4 현덕왕후의 복위에 관한 역사적 쟁점들을 고찰한 논문이 있다. 이현진, 「조선전기 昭陵復位論의 추이와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23(2002), pp. 49-83.

석물들의 귀속뿐만 아니라 안산 폐릉지가 현덕왕후의 초장지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sup>5</sup>

## II. 현덕왕후 무덤의 변천

### 1. 현덕왕후

현덕왕후는 花山府院君 權專의 딸로, 조선 제5대 왕 文宗의 妃이자 제6대 왕 端宗(1441~1457)의 어머니이다. 1431년(세종 13년) 13살의 나이로 세자궁에 궁녀로 들어가 정4품 承徽에 봉해지고, 이어 良媛로 진봉되었다.<sup>6</sup> 1436년(세종 18년)에 왕세자빈이었던 순빈 봉씨가 폐출된 뒤 왕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嘉禮도 행하지 못한 채 1441년(세종 23년)에 아들 흥위(단종)를 낳은 다음 날에 죽자 세종은 顯德이란 시호를 내렸다. 文宗이 즉위한 뒤 왕후에 추봉되었고, 1454년(단종 2년)에 仁孝順惠의 徽號를 追上받았다.<sup>7</sup>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맞이하기 전까지 두 명의 빈이 있었다. 세자 나이 13살 때(세종 9년) 김씨를 휘빈으로 맞았으나, 2년 후에 김씨가 문종을 媚惑시키는 방법으로 壓勝術을 쓴 단서가 발각되자 폐빈이 되었다.<sup>8</sup> 이후 봉씨를 순빈으로 삼아 세자의 나이 18세가 되던 해에 정식 세자빈으로 책봉했다. 그러나 세자가 관심을 주지 않아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투기가 심하고 궁궐 여종과 동침하는 행위 등으로 세자빈 봉씨는 끝내 폐출된다.<sup>9</sup> 봉씨가 폐출된 지 두 달 후에 현덕왕후 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세자빈이 일찍 죽자 세종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

<sup>5</sup> 두 차례 발굴이 있었으나 소릉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연구자들 역시 소릉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진홍섭은 이 석호는 “원래 경기도 시흥의 폐릉에 있었던 것이고 陵號를 昭陵이라고 傳하여 왔기” 때문에 ‘소릉 석호’로 간주하고 글을 썼다. 한편 강우방은 이 석호들이 발굴되었다는 경기도 시흥 폐릉지가 소릉터라고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강우방, 앞의 글 참조).

<sup>6</sup> 『세종실록』 권50, 12년(1430년) 윤12월 16일. “이제 동궁(東宮) 내관(內官)의 관제(官制)·칭호·품질(品秩)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내관은 양제(良嬪) 정2품, 양원(良媛) 정3품, 승휘(承徽) 정4품, 소훈(昭訓) 정5품 이요.”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세종 12년 윤12월부터 동궁전의 체제도 구체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sup>7</sup> 『단종실록』 권11, 2년(1454년) 4월 2일.

<sup>8</sup> 『세종실록』 권45, 11년(1429년) 7월 20일.

<sup>9</sup> 『세종실록』 권75, 18년(1436년) 10월 26일.

구하고 직접 재를 올렸다. 그리고 “세자가 거처하는 궁에서 生別한 빈이 돌이고, 死別한 빈이 하나이니, 매우 상스럽지 못하다. 마땅히 헐어 버려 다시 거기에 거처하지 말게 하자”고 하며 資善堂 밖에 궁을 새로 지어 세자를 살게 하였다.<sup>10</sup> 세자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따로 왕비를 들이지 않고 세자빈 권씨를 현덕왕후로 추봉하였다.

## 2. 소릉의 조성과 폐릉

현덕왕후의 장지는 경기도 안산 와리산으로 정해졌다. 사망 당시에는 세자빈이었기 때문에 墓制로 무덤을 조성했다. 문종이 즉위한 후에 능으로 추봉하였고 단종에 이르러서 능에 걸맞은 상설을 갖췄다. 그러나 世祖가 즉위한 후에 소릉을 파헤쳐 改葬했다. 이후 중종이 현덕왕후를 복위시키면서 소릉이라는 능호를 쓰지 않고 문종의 현릉 옆에 同原異岡陵 형식으로 천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소릉 관련 연대기표

연도	날짜	내용
1441	7월 23일	세자빈 권씨 원손(단종) 출산
	7월 24일	세자빈 권씨 사망(24세)
1450	2월 19일	문종 즉위
	7월 1일	권씨 무덤을 묘에서 능(소릉)으로 추송
1452	5월 14일	단종 즉위
	9월 1일	문종 현릉 조성
	9월 21일	소릉 석물 설치 지시
1457	9월 2일	의경세자 사망
	6월 26일	소릉 폐릉 및 改葬
	10월 21일	단종 사망
1513	4월 21일	현덕왕후 무덤을 起陵하여 문종 현릉과 합장

<sup>10</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7월 25일.

### 1) 세자빈 권씨묘의 조성

세자빈 권씨는 단종을 낳고 그 이튿날인 1441년 7월 24일에 24세의 젊은 나이로 죽는다. 조선왕실에서는 처음 치르는 세자빈의 장례였기 때문에 斂殯都監을 설치하여 규범을 세우면서 장례의식을 시행했다. 세종은 “元敬王后(1365~1420)보다 내리고 貞昭公主(1412~1424)<sup>11</sup>보다 1등을 더하게” 하도록 격식을 결정했다.<sup>12</sup> 당시에는 세자나 세자빈에 걸맞은 별도의 무덤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 즉위 이후에 장례를 치른 元敬王后의 陵制와 貞昭公主의 墓制의 중간을 취한 것이다. 후대에 이르면 이와 같이 능보다는 낮추고 묘보다는 높은 무덤이 조선왕실 무덤의 園制 형식으로 정착하게 된다.

세자빈 권씨의 무덤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권씨가 죽은 지 한 달 후에 장지가 안산으로 정해졌는데, 이때 노비출신 陸孝智가 흥당이라고 반대 상소를 올린 기록이 있다.

전농시(典農寺)의 중[奴] 목효지가 상언하기를, “이제 빈궁의 능소인 안산 고읍(古邑) 땅을 보니, 그 산의 내룡(來龍)이 얇고 약하며, 길로 끊어진 곳이 많아서 10여 군데나 되웁니다. … 《낙도가(樂道歌)》에 이르기를, ‘동궁(東宮)이 달려가서 서궁(西宮)을 지나면, 장자·장손이 일찍 죽는다.’고 하였사웁니다. 또 고현(古縣)은 산가(山家)가 역시 꺼리는 것이웁니다. 《동림조담》에 이르기를, ‘장터[市墟]나 고현은 부녀(婦女)가 미천(微賤)하다.’ 하였사운데, 이것으로서 보옵건대, 바로 그것이 흉악한 땅이웁니다.”<sup>13</sup>

마치 아들 단종의 죽음과 왕후의 폐서인을 예언하는 듯한 상소였다. 세종은 安平大君 등을 시켜 장지를 검토하도록 했으나,<sup>14</sup> 최종적으로는 장지는 그대로 하고 葬穴의 방향만 바꾸기로 결정했다.<sup>15</sup> 이때 조선왕실 무덤의 穴의 깊이가 정해지게 된다. 아직 오례의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무덤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파서 시신을 안치시킬 것인지도 문제였다. 이에 정인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sup>11</sup> 貞昭公主는 세자빈 권씨의 시누이로, 笄禮를 치르기 전에 완두창(마마)에 걸려 1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현재는 묘에 석물이 없이 서삼릉 왕자공주묘역으로 이장되어 있다.

<sup>12</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7월 24일.

<sup>13</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25일.

<sup>14</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28일.

<sup>15</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9월 2일. 李正寧·閔義生·鄭麟趾·庾順道 등이 아뢰기를, “안산(安山)의 장형(葬穴)은 계좌정향(癸坐丁向)이운데, 고서(古書)에서 꺼리는 마이오니, 청하옴건대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고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즉시 민의생을 안산(安山)에 보내어 고쳐 정착하게 하였다.

본국(本國)의 산릉에 광중을 파는 데에는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이미 격례(格例)가 있사온데, 이제 주척(周尺)으로 영조척을 계산하오면 그 길이가 1척 5촌으로, 토규척(土圭尺)의 1척 5촌이라는 문헌과 서로 합치됩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능실(陵室)의 광중을 파는 것은 마땅히 범인(范麟)의 1장(丈)이라는 설(說)을 쓰고, 조종(祖宗)께서 이미 실행한 구례를 따라 영조척을 써서 깊이 1장 이하로 파게 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정하고, 만약 흙이 박하고, 물이 얇은 땅이면 임시(臨時)하여 척수(尺數)를 요량하여 감하게 하소서.<sup>16</sup>

이때 왕실 무덤의 穴의 깊이는 營造尺 1丈으로 정해졌고, 이후 광중의 깊이는 ‘營造尺 10尺’으로 한다는 오례의 규범이 확정된 것이다. 왕실무덤에 넣는 부장품도 이때 정해진다. 세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종 이래로 산릉제도를 모두 古制에 따라 金銀珠玉은 일체 쓰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銷金, 銷銀으로 明器, 服玩 등의 물건을 장식하여 玄宮에 넣으니 古制에 어긋남이 있다. 이제부터는 비록 銷金이나 銷銀이라도 일체 다 금지하고 영구한 恒式으로 삼으라.”라고<sup>17</sup> 지시하여 부장품에 금은으로 장식하는 일을 금했다.

그 밖에 장사를 지낸 후에 무덤을 지키는 守護軍의 수도 정했는데, 세자빈의 경우는 齊陵의 50戶와 厚陵의 40戶에서 조금 감한 30戶로 결정되었다.<sup>18</sup> 게다가 왕세자빈의 상례에 관한 의례도 정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喪主가 喪服을 벗는 시기 같은 기본적인 상례조차 새로 정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영의정 이하 신하들은卒哭이 끝나면 바로 衰服을 벗자는 주장과 2년 후에 벗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2년 후에 벗지만 3년 후에 致齋를 그치게 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sup>19</sup> 이러한 상황에서 무덤에 세우는 象設 또한 일일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결과 원경왕후 능보다는 낮추고 정소공주묘와는 구별이 되는 墓制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

## 2) 昭陵으로 추봉

1450년 2월 24일에 즉위한 문종은 세자빈 권씨를 현덕왕후로 올리고 무덤에 소릉이라는 능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때 무덤의 형식을 변경한 기록은 없다. 문종이 권씨의 무

<sup>16</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20일.

<sup>17</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11일.

<sup>18</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9일.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릉과 후릉의 수호군의 수를 달리하여 차등을 둔 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이순, 「『세종실록』의 후릉(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6,1(2013), pp. 91-117 참조.

<sup>19</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8일.

덤을 왕릉의 형식으로 미쳐 바꾸기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현덕왕후의 무덤 형식을 墓制에서 陵制로 격상하는 일은 아들 단종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단종이 즉위년(1452년) 9월 21일에 “昭陵의 雜像은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설치하라.”라고 예조에 명한 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1452년에 석물을 추가로 설치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석물을 추가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재 소릉 석물로 전해지는 석물을 분석하여 당시 추가로 설치했을 석물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난간석을 들 수 있다. 조선 초기 왕릉에는 대부분 병풍석과 난간석이 설치되어 있다. 소릉 역시 그랬으리라 추측되는데, 두 차례의 발굴에서 난간석주만 발견되었을 뿐 병풍석과 관련된 석물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소릉이 조선 초기의 왕릉임에도 불구하고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했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컨대, 德宗(1438~1457)의 무덤을 의경세자묘에서 敬陵으로 추봉할 때, “神道는 고요함을 숭상”한다고 해서 貞熹王后(1418~1483)가 석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같은 이유일 수 있다.<sup>20</sup> 즉, 능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도 무덤을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난간석만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병풍석은 제작이 까다로운 뿐만 아니라 설치를 위해서는 봉분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국가적으로 여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록을 보면, 문종 현릉 조성 공사가 1452년 9월 1일에 끝나고 9월 30일에는 소릉의 산릉과 창덕궁 役事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sup>21</sup> 더구나 그 해에 흥년이 든 가운데 빈번한 중국의 사신접대에다 여러 곳에서 진행된 축성 공사와 승인문 役事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가적으로 재력이 바닥난 상태였다.<sup>22</sup>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소릉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한 최초의 능이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세조 광릉이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한 첫 번째 능이라는 설은 재고되

<sup>20</sup> 『성종실록』 권2, 1년(1470년) 1월 25일. 현재 德宗 敬陵에 대해 소개하는 서오릉 홈페이지에는 “성종대에 이르러 왕릉의 규범에 따라 덕종의 능침에도 의물을 가설하고자 하였으나, 덕종의 비이며 당시 대왕대비였던 소혜왕후가 석물을 가설치 말라 하여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sup>21</sup> 『단종실록』 권3, 즉위년(1452년) 9월 30일. 司諫院左獻納 趙元禧가 본원의 논의를 가지고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흥인문을 고쳐 짓는다고 하는데, 이 문이 심히 기울고 허물어진 것도 아니며, 또 山陵과 창덕궁 역사도 함께 하니, 청컨대 이를 정지시켜 民力을 쉬게 하소서.”라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에 국가적으로 여력이 별로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sup>22</sup> 『단종실록』 권3, 즉위년(1452년) 11월 14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창덕궁(昌德宮)의 인정전(仁政殿)을 개축한다 합니다. 또 금년은 흥년인데, 산릉(山陵)과 승인문(崇仁門)의 역사(役事)를 하고 있고,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접대가 번거로워 백성들의 곤고(困苦)가 심합니다.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라는 기록을 통해 국초에 다양한 役事와 접대가 필요했지만 흥년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소릉은 석인, 석호, 석양, 석마 각 1쌍과 석상, 장명등으로 이루어진 세자빈묘에 陵制의 곡장과 난간석 및 망주석이 추가로 배설된 왕릉 형식이었을 것이다.

### 3) 소릉의 폐릉

현덕왕후의 무덤은 능으로 추봉된 지 불과 7년만인 1457년에 폐위되고 改葬된다. 이는 세조의 왕권확립과정에서 발생한 단종 복위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릉 폐위 사건이 있을 즈음 왕실에서 불과 넉 달 사이에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는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아들인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으로 등극한다. 이에 반발하여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모의했다고 하여, 모반의 중심인물들은 물론 단종의 모계까지 멸족을 당하게 된다. 『세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현덕왕후 권씨의 어머니 아지(阿只)와 그 동생 권자신(權自愼)이 모반(謀反)하다가 주살(誅殺)을 당하였는데, 그 아버지 권전(權專)이 이미 추후하여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었으며, 또 노산군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 이미 군(君)으로 강봉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아직도 명위(名位)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추후하여 폐하여서 서인으로 만들어 개장(改葬)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23</sup>

현덕왕후는 폐서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 역시 능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改葬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지 1주일 후인 1457년 7월 3일에 금성대군이 順興에서 상왕 복위를 모의한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이에 금성대군이 머물던 순흥은 府라는 행정구역을 상실하게 된다. 이어 9월 2일에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오래 앓던 병으로 사망하였다.<sup>24</sup> 세조는 의경세자의 장례가 한창 진행 중이던 10월 21일에 노산군을 죽이고,<sup>25</sup> 11월 18일에는 노산군과 금성대군의 자손들을 종친에서 삭제한다. 그리고 11월 24일에 경기도 고양에 의경세자의 장례가 끝난다.<sup>26</sup>

<sup>23</sup> 『세조실록』 권8, 3년(1457년) 6월 26일.

<sup>24</sup> 『세조실록』 권9, 3년(1457년) 9월 2일. “세자가 본궁 정실(正室)에서 졸(卒)하였다. 세자는 용모와 의표(儀表)가 아름답고 온량(溫良) 공경(恭敬)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또 해서(楷書)를 잘 썼다. 양궁(兩宮)이 애도(哀悼)하니, 시종한 여러 신하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sup>25</sup> 『세조실록』 권9, 3년(1457년) 10월 21일. 이 기록에는 “…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sup>26</sup> 『세조실록』 권10, 3년(1457년) 11월 24일.

『연려실기술』 제4권 「文宗朝故事本末」의 ‘昭陵의 폐위와 복위’에 관한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정축(1457)년 겨울에 세조가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 괴이한 일이 생기니, 곧 소릉을 파헤치라고 명하였다. 사신이 석실(石室)을 부수고 관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무거워서 들어낼 도리가 없었다. 군민(軍民)이 놀라고 괴이쩍어하더니, 글을 지어 제를 지내 고서야 관이 나왔다. 사나흘을 노천에 방치해두었다가 곧 명을 따라 평민의 예로 장사지내 고서 물가에 옮겨 묻었다. <陰崖日記>

○ 하룻밤에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매우 분노하여, “네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 너는 알아두어라.” 하였다. 세조가 놀라 일어나니, 갑자기 동궁(東宮 덕종)이 죽었다는 기별이 들려왔다. 그 때문에 소릉을 파헤치는 변고가 있었다. 왕권을 빼앗긴 임금도 화가 땅속까지 미친 예를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릉·소릉 두 왕비의 능이 변을 당하였다. <逐睡篇>

『연려실기술』의 기록에서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는 구절은 先後가 맞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실록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는 현덕왕후의 아들 단종보다 48일 앞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덕왕후 소릉의 폐위와 改葬이 단종 복위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재확인할 수 있다.

#### 4) 현덕왕후 무덤의 追復과 遷陵

1457년에 현덕왕후는 폐서인되고 무덤이 파헤쳐졌으며 神主도 종묘에서 내려졌다가 56년 만에 中宗에 의해 복위되고, 문종 현릉 옆에 능이 재조성되었다. 현덕왕후 복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 7년(1512년) 말엽이었는데, 중종은 소릉에 대한 기록을 살피게 하는 등, 신하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어렵사리 追復을 결정했다.<sup>27</sup> 현덕왕후의 追廢는 선왕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대신들의 그릇된 청에 못이긴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후의 동생 權自愼의 謀逆도 왕후가 돌아가신 지 15년 뒤의

<sup>27</sup> 연산군 때에도 소릉 복위에 관한 상소가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거론한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당했다. 소릉 복위와 그 정치적 내막에 대한 논의는 이현진, 앞의 논문 참조.

일이라 왕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문종이 配位 없이 홀로 종묘에서 제사 받도록 하는 것이 미안하고 종묘의 소나무에 내린 벼락도 심상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현덕왕후를 복위하고 무덤을 遷陵하기로 한 것이다.<sup>28</sup>

이에 천릉도감을 설치하고 우의정 宋軼을 山陵摠護使로 임명하여 경기도 양주의 顯陵에 문종과 함께 합장하기로 한다. 그러나 폐릉시키고 파헤쳐 改葬까지 했던 무덤을 찾아내서 천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sup>29</sup> 당시 상황을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릉도감(遷陵都監)의 송일·김응기·신용개 등이 아뢰기를, “듣건대 소릉은 원래 내재궁(內梓宮)만으로 장례하고 또 천장할 때에 회삼물도 다지지도 않았다 하니, 필시 관도 없고 해골만 있을 것입니다. 무릇 천장하는 사람들은 해골이 있으면 해골만 거두어 장례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여 행함이 어떠하리까? 그러나 해골도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리까? 대저 신도(神道)는 다 허(虛)를 상징함이니, 만약 해골이 없으면 혼(魂)을 모셔 염장(斂葬)함이 어떠하리까?”<sup>30</sup>

『연려실기술』에도 이에 대해 기술한 대목이 있다.

처음 능을 파헤쳐서 해변에 옮겨 묻은 뒤로는 전소(奠掃)와 수호(守護)가 끊어진 지가 수십 년이 되니, 거민들이 단지 언덕 하나가 그곳이라고 전해온다고 알고 있을 뿐 타설(他說)이 있어 사람을 의혹케 하였다. 천장하려 할 때 땅을 깊이 파으나 관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줄을 몰랐더니, (중략) 이 날 밤에 감관(監官)이 졸고 있는데 꿈에 왕후를 보니 장전(帳殿)에서 안석에 기대어 왕후의 위의를 갖추고 두 시녀가 모시고 있었다. 감관을 불러 위로하기를,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하니, 감관이 엎드려 절하고 놀라 땀을 흘렸다. 잠을 깨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두어 자 더 깊이 파니 곧 손바닥 넓이만한 관의 칠편(漆片)이 삽날에 찍혀 나와 관을 발견함으로써 능히 일을 잘 마쳤다. 《陰崖日記》 《龍泉談寂記 合錄》<sup>31</sup>

<sup>28</sup> 『중종실록』 권18, 8년(1513) 3월 12일.

<sup>29</sup> 『중종실록』 권17, 8년(1513) 1월 7일. “일찍이 들으니, 改葬한 곳이 本陵에서 10리 거리의 海口와 가까운 물가로, 돌보지 않아 묵고 무너져 곧 평지가 되려 하매, 여우와 새이 굴을 파고 들불[野火]이 타든다 합니다.”라는 기록을 통해 改葬 후 무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sup>30</sup> 『중종실록』 권18, 8년(1513) 4월 13일.

<sup>31</sup> 『연려실기술』 제4권, 「文宗朝故事本末」, ‘昭陵의 폐위와 복위’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보건대, 현덕왕후의 무덤은 1457년 개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라진 셈이다. 따라서 천릉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동구릉에 문종 顯陵과 同原異岡陵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덕왕후 무덤은 1513년에 완전히 새로 조성된 것이고 석물 역시 이 때 새로 제작된 것이다.

### Ⅲ. 폐릉지 출토 석물 분석

두 차례에 걸친 소릉터 발굴조사 보고서의 유물 목록에는 왕릉 석물에서 중요한 석물인 石人이 없으며 발굴된 석물의 수도 매우 적고 석물들이 발굴된 지점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sup>32</sup> 이는 폐릉시킬 때,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sup>33</sup> 조선왕실에서 무덤을 없앨 경우, 조선 초기 舊 英陵은 물론 조선 후기 永祐園의 경우처럼 석물을 땅에 묻는 것이 원칙이었다.<sup>34</sup> 舊 貞陵의 경우, 능 석물을 광통교 흠다리를 돌다리로 만드는 데 가져다쓰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땅에 묻었다.<sup>35</sup> 그러나 소릉의 경우에는 폐릉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물을 민가에서 쓰다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sup>36</sup> 폐릉 석물을 땅에 묻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소릉 석물로 알려진 석물은 석호 2점, 석양 1점, 난간석주 1점에 불과한데 (<표 2>), 그나마 석호의 경우는 소릉 석물이 아니라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sup>37</sup> 따라서 이 석물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석물들이 발굴된 지점에 대해서는 정영호, 앞의 글, pp. 14-15; 경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p. 16-21 참조.  
 33 한편 경희대학교 발굴단이 壙中에서 일본 동전(大正十年) 한 점을 발견한 사실(경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 22)로 미루어, 일본인들이 도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  
 34 영우원의 석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미술사학보』 31(2008, 12), pp. 65-70 참조.  
 35 『태종실록』 17권, 9년(1409) 4월 13일. “...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석인을 가지고 주초(柱礎)를 메우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귀령에게 이르기를, “옳지 못하다. 묻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36 『海東野言』 권3, 中宗紀(上). 민가에서 폐릉(廢陵)에서 나온 돌을 쓰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나고, 마소를 놓아 농자리를 밟으면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큰 폭풍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공경하고 신비롭게 여겼다.  
 37 강우방, 앞의 글.

표 2 소릉 주요 석물 목록

구분	크기(cm)	재질	소장처	발굴 경위
석호	東: 93×163 西: 97×158	백색조립화강석, 황토변색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土地주가 반출(1967)
석양	76×148×54	백색조립화강석, 황토변색	안산향토사박물관	경희대학교 발굴조사 (1982)
난간석주	161×63×32	백색조립화강석, 황토변색	안산향토사박물관	단국대학교 발굴조사 (1978)

소릉의 특성상, 소릉 석물의 진위 판별을 위해서는 능 조성 당시의 조선시대 묘제 석물과 능제 석물을 교차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선 초기의 묘제 석물로는 소릉 석물과 비교할 만한 유물이 거의 없다.<sup>38</sup> 따라서 왕릉의 석물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세자빈 묘로 조성했을 당시의 석물과 왕릉으로 추봉하면서 추가로 설치했을 석물을 가려내고자 한다.

## 1. 석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하 ‘이대박물관’으로 약칭) 앞에는 소릉의 석물로 알려진 한 쌍의 석호가 나란히 놓여있다(도 2). 이 석호들은 경기도 안산의 폐릉지에서 출토된 석물로, 이대박물관은 1967년에 골동품상 黃圭董으로부터 5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sup>39</sup> 단국대학교 발굴보고서에 山主 정씨가 팔았다고 언급되어 있는 돌 해태 한 쌍이 바로 이 석호일 것으로 추측된다.<sup>40</sup> 한편 1982년 경희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보고서에는 許某氏가 석호 2기를 반출했다고 언급되어 있다.<sup>41</sup>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대박물관에서 석호를 소장하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것이다. 더구나 그 출처도 안산의 폐릉지라고 구전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석호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대박물관의 석호 한 쌍은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솜씨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한 무덤의 석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릉의 석호는 대동소이하게 앞발을 수직으

<sup>38</sup> 조선 초기 墓制 석물의 석수로는 성령대군(1405~1418)묘의 석양과 석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고려 말의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현덕왕후 묘제 석물과 비교분석은 의미가 없다.

<sup>39</sup> 강우방, 앞의 글, p. 23.

<sup>40</sup> 정영호, 앞의 글, p. 14.

<sup>41</sup> 경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 34.



도 2 소릉 석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필자 촬영

로 세우고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제작시기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대박물관 소장의 석호들 역시 여느 석호처럼 엉덩이를 땅에 붙인 채 앞발을 수직으로 세우고 앉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형적 특징이 발견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배 아래 앞뒤 다리 사이가 뚫려 있는 점과 꼬리를 내리고 있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조선왕릉 석수의 제작 시기 추정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 석호들은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육중한 느낌이 든다. 턱 아래 밋밋하게 늘어진 肉垂 탓에 목과 몸통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 둔중해 보이지만, 등줄기가 유연하고 양감이 있어 당당함이 느껴지기도 하며, 한편 골격이나 근육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옆 턱선, 앞다리의 어깨선, 뒷다리의 대퇴부 구분선을 모두 얇게 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순한 느낌이 든다. 측면에서 보면 머리 부분의 덩어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정면에서도 이목구비가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커다란 눈과 코, 입꼬리가 올라간 입, 가지런한 이빨 표현은 민화의 호랑이 같은 해학적인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 석호들에 관해 글을 쓴 진홍섭과 강우방은 제작시기를 서로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석호들을 구입할 당시 이대박물관장이었던 진홍섭은 구전으로 안산 폐릉지의 것으로 전해 들었고, 『조선왕조실록』의 단종의 소릉 親祭 행차 기록을 근거로 소릉의 위치를 안산

부근으로 추정하였다.<sup>42</sup> 그런 추정 하에, “發見地點과 記錄에 依한 繪陵[昭陵]의 位置도 일 치하고 있으니 이 石虎가 昭陵의 石虎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sup>43</sup>

한편 1997년 이대박물관 기획전 《우리 옛 돌조각의 힘》의 도록에 실린 「梨大博物館 所藏 돌 호랑이의 魔力」이라는 글에서 강우방은 이 석호들은 현덕왕후 소릉의 석물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sup>44</sup> 비록 출토지가 안산 폐릉지일지라도 조형적으로는 18세기의 석물 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 석호들에서 보이는 추상성으로 볼 때 抽象化의 경향이 심화되는 18세기의 석물이며, 또한 한 쌍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추존왕릉의 석물이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같은 도록의 석호 설명부분에서는 “현덕왕후 소릉을 지키던 것으로 전해온다”고 밝혔으나,<sup>45</sup> 당시 『경향신문』에는 이 석호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아쉬움을

준다.”라고 언급되어 있다.<sup>46</sup> 현재 이대박물관 명패에는 “조선 15~16세기”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앉아 있는 모습과 해학적인 표정은 조선시대 왕릉 석호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떠난 석호를 어느 특정 왕릉으로 귀속시키기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석물의 양식적 특징을 면밀히 비교분석하면,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특정 왕릉의 석물로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대박물관 석호들의 측면(도 3)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 왕릉 석호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조선 왕릉 석호는 모두 앉은 자세이지만,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배 아래, 앞뒤 다



도 3 소릉 석호 측면, 필자 촬영



도 4 태종 현릉 석호, 1422년, 필자 촬영

<sup>42</sup> 진홍섭, 앞의 글, p. 35.

<sup>43</sup> 진홍섭, 앞의 글, p. 36. 여기서 '繪陵'은 '昭陵'의 誤記로 보임.

<sup>44</sup> 강우방, 앞의 글, p. 22.

<sup>45</sup> 강우방, 앞의 글,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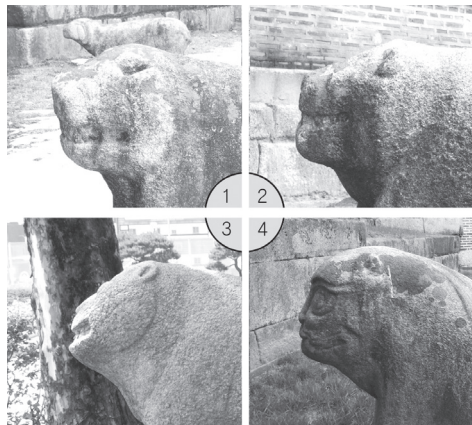
<sup>46</sup> 이용, 「서민예술의 진수 '옛 돌조각'展」, 『경향신문』 1997년 11월 4일 18면.



도 5 문종 현릉 석호, 1452년, 필자 촬영



도 6 경종 의릉 석호, 1724년,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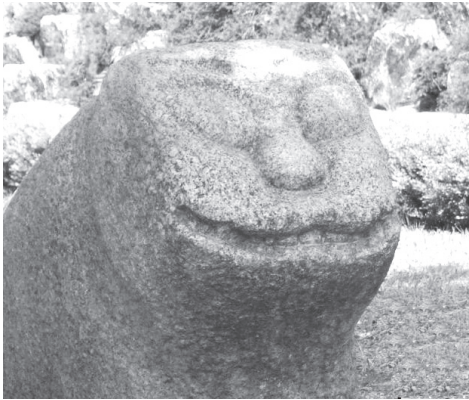


도 7 석호 머리 비교, ① 건원릉(1408년), ② 현릉(1420년), ③ 소릉(1441년), ④ 현릉(1452년), 필자 촬영

리 사이가 뚫린 경우는 1422년에 조성된 태종의 현릉 석호가 유일하다(도 4). 1452년에 조성된 문종 현릉의 석호(도 5)는 앞뒤 다리 사이가 막혀 있으며 이후에 조성된 석호에서도 다리 사이가 뚫린 사례를 찾기 어렵다. 18세기에 제작된 景宗(1688~1724) 懿陵의 석호(도 6)를 살펴보면 앞뒤 다리 사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대박물관 석호들이 18세기에 제작되었다는 강우방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석호는 꼬리가 등을 향해 올라간 모습인데, 이대박물관 석호들은 꼬리를 바닥에 늘어뜨리고 있다. 조선왕릉 석호에서 꼬리의 위치 변화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석물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육면체에 가깝게 각이 진 네모난 얼굴에 돼지주둥이처럼 뾰족하게 앞으로 튀어나온 주둥이 표현은 조선 초기 석호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건원릉과 태종 현릉 석호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주둥이가 튀어나오지 않고 얼굴은 평평해진다(도 7). 이처럼 이대박물관 석호는 조선 초기 석호의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머리 모양을 간단한 선으로 새기는 등의 순석조형(循石造型) 기법<sup>47</sup>이 나타나는 것은 강우방의 주장대로 추상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입체감 표현이 미숙한 석공이 제

<sup>47</sup> 순석조형 기법은 중국 한나라 광거병묘의 석상 같이 돌의 기본 형태를 따라 돌아가면서 선으로 새기는 기법으로, 古拙한 분위기를 준다.



도8 소릉 석호 정면, 필자 촬영



도9 의릉 석호 정면, 필자 촬영

작한 맛이 아닐까 싶다. 이를 18세기 의릉의 석호와 비교해보면,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조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대박물관 석호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선각으로 세부를 표현한 것에 비해(도 8), 18세기 석물에서는 요철로 입체감 있게 세부 형상을 조각했다(도 9). 또한 의릉의 석호는 어금니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어 해학적이기보다는 다소 무서운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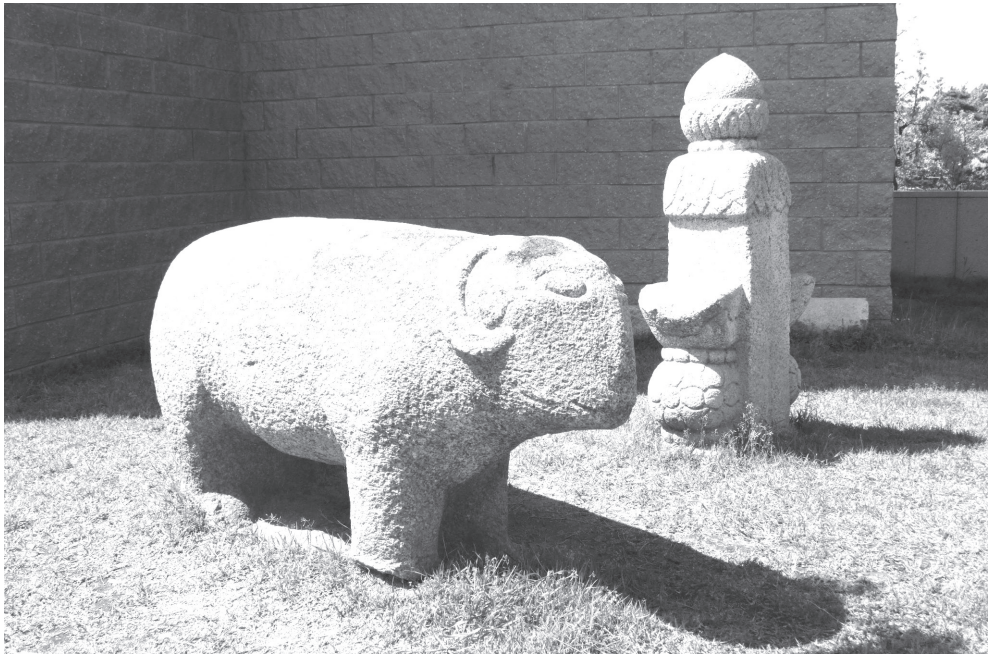
요컨대, 이대박물관 석호는 앞뒤 다리 사이가 뚫린 점과 꼬리를 내리고 있는 점에서 태종 현릉의 석호와 같은 시기의 석물로 판단된다. 이대박물관의 석호들이 추상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근육의 묘사가 생략되고 세부를 선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인데, 이는 시기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석공 개별의 표현 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말하자면, 호랑이의 형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입체감 표현의 미숙에서 발생한 것으로, 석공의 솜씨가 왕릉의 석물을 제작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추측컨대, 이대박물관 석호는 소릉으로 추봉할 당시에 추가로 설치한 석물이 아니라 원래 묘로 조성할 때 설치한 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능으로 추봉할 당시에 추가로 설치한 석물이라면 1452년에 조성된 문종 현릉의 석호와 양식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뒤 다리 사이가 뚫리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입체감의 표현이나 석호의 인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이대박물관 석호들은 1441년에 세자빈 묘를 조성할 때 설치했던 석물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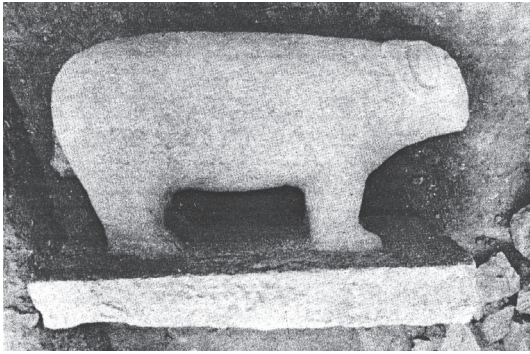
현재 안산향토사박물관 잔디밭에 난간석주와 석양 한 점이 나란히 놓여 있다(도 10). 이 석물들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석양은 1982년에 경희대학교 박물관이 폐릉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유물 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상태였던 석물이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온전한 상태였는데(도 11), 관리 소홀로 오른쪽 앞발과 대석 일부가 훼손되긴 했어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sup>48</sup>

석양은 석호와 마찬가지로 塊量感이 있지만 해부학적 구조나 근육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단순해 보인다. 측면에서 볼 때도 등줄기의 선이 수평을 이루고 머리를 든 각도의 변화도 거의 없어 유연성이 부족하다. 석물이 밋밋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유는 눈과 입을 선각으로 표현한 것처럼 순석조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뿔 역시 곡선이지만 입체감 표현이 거의 없이 평평하며, 발도 뭉뚱그려 표현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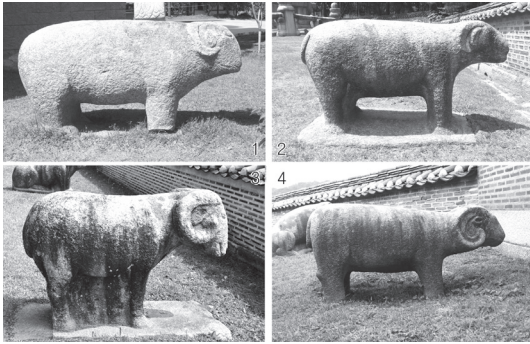


도 10 석양과 난간석주, 안산향토사박물관, 경기도 안산시, 필자 촬영

<sup>48</sup> 두 차례에 걸친 폐릉지 발굴조사에서 나온 석물들은 오랫동안 안산시청 뒤편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안산향토사박물관 이현우 사무국장의 관심으로 일부 석물이나마 안산향토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유실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도 11 소릉 석양 발굴 당시 사진(경희대학교박물관, 『현덕왕후 폐릉지 발굴조사 보고서』, p. 44)



도 12 ① 소릉, ② 현릉, ③ 현릉, ④ 목릉(1632년) 석양 비교, 필자 촬영

이대박물관 석호와 마찬가지로 1441년 세자빈의 묘를 조성할 때 설치했던 석양이며 이는 조선 초기 석양 유형의 마지막 사례라고 하겠다(도 12).

### 3. 欄干石柱

안산향토사박물관 소장 欄干石柱(도 13)는 1978년에 단국대학교 유적발굴조사단이

것 등으로 보아 羊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석공이 조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남아 있는 왕릉의 석양 중에서 이와 비교할 만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각 솜씨가 미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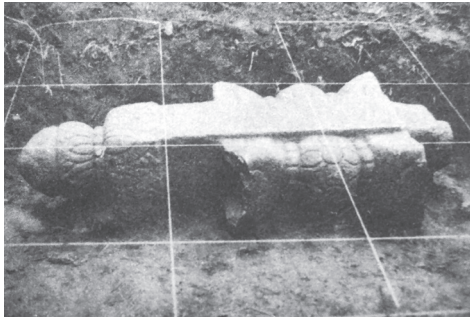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양은 이대박물관 소장 석호나 현릉의 석양처럼 앞뒤 다리 사이가 뚫려 있어서 조선 초기 石獸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舊 英陵의 석물(1446년)에서 알 수 있듯이,<sup>49</sup> 오례의가 제정된 이후에 조성된 왕릉의 석수는 앞뒤 다리 사이를 뚫지 않고 평평하게 다듬고 그 위에 草形을 새겼다.<sup>50</sup> 조선왕릉 석양 중에서 17세기 초에 조성된 선조 穆陵, 원종 章陵, 인조 長陵의 석물에서 다리 사이에 공간을 뚫은 사례가 일부 보이는 하지만, 앞뒤 다리 사이가 뚫린 석수가 등장한 것은 조선 초기에 조성된 건원릉과 현릉뿐이다. 따라서 안산향토사박물관에 소장된 석양은

<sup>49</sup> 舊 英陵의 석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32.1(2009), pp. 155-190 참조.

<sup>50</sup> 『세종실록』, 오례 / 흥례 의식 / 治葬 조



도 13 난간석주, 안산향토사박물관, 필자 촬영



도 14 발굴당시 난간석주(정영호, 『목내리산성 발굴조사보고(단국대학교)』, 『반월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 p. 21)

발굴한 것이다(도 14). 발굴조사단은 원래 목내리 산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조사 당시 인근 현덕왕후 폐릉지에 石造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탐사하였다. 그러나 폐릉지는 鄭焯喆의 개인 소유지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굴은 하지 못하고 폐릉지 주변에서 난간석주 한 점만을 수습할 수 있었다.<sup>51</sup>

이 난간석주를 살펴보면, 석주의 꼭대기 머리 부분은 둥근 寶珠形이고 보주 아래에는 仰蓮과 覆蓮이 새겨져 있으며 그 사이에 聯珠가 둘러져 있다. 기둥 중간 부분의 좌우 날개에는 죽석을 안정적으로 걸칠 수 있도록 홈이 패어 있고, 바깥으로는 子房이 있는 4엽 蓮花文이 새겨져 있다. 날개 바닥 부분도 지대석에 얹을 수 있도록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하단에는 축이 돌출되어 지대석의 圓孔에 꽂을 수 있도록 설계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난간석주이다. 난간석은 조선시대에 왕릉과 태실에 설치했던 석물로, 墓나 園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왕릉 난간석과 태실 난간석의 구분은 석주에 붙어 있는 날개가 벌어진 각도로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규모가 작은 태실은 난간석이 8각형이고 왕릉의 난간석은 12각형이기 때문에 난간

석주 날개의 벌어진 각도가 서로 다르다. 안산향토사박물관의 난간석주는 날개 내각의 각도가 약 150도인데, 이는 왕릉에 설치되었던 12각형의 난간석주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안산향토사박물관의 난간석주가 소릉 석물인지의 여부이다. 이 난간석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석주 주두의 양면 부분이 아래의 복면 부분보다 폭이 좁다는 점이다(도 15). 조선시대 난간석주 주두에 장식된 문양의 양식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대체

<sup>51</sup> 1978년 1차 발굴 후, 1981년 7월에 한 도굴꾼이 능안(陵內)에서 출토된 난간석주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m.grandculture.net/> '능안'). 또한 『안산시사』에는 단국대학교에 난간석주 2점이 보관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필자는 단국대학교에서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에 소릉 관련 석물들이 더 발견될 수 있다.



도 15 난간석주 주두, 필자 촬영



도 16 현릉(1452년), 창릉(1470년), 홍릉(1757년) 난간석주 비교, 필자 촬영

로 양련과 복련 장식의 폭이 비슷하며 소수의 능에서만 예외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조선왕릉 전체에서 난간석주가 異形으로 조성된 능은 문종 顯陵(1452년), 예종 昌陵(1470년), 소혜왕후 敬陵(1504년), 정성왕후 弘陵(1757년) 4기뿐이다. 창릉과 경릉의 난간석주에는 아예 연꽃 장식이 생략되었으며, 홍릉의 경우는 연꽃 대신에 연잎으로 장식되어 있다. 오직 현릉의 경우만 양련이 복련보다 좁게 조각되어 있는데, 안산향토사박물관에 있는 난간석주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각되어 있다(도 16). 이러한 사실은 1452년에 문종 현릉의 석물을 제작한 석공이 소릉의 석물 제작에도 참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로써 볼 때, 안산향토사박물관의 난간석주는 소릉 석물이며, 원래 세자빈묘에는 난간석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소릉으로 추봉하면서 추가로 난간석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소릉의 추봉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종이 소릉을 추봉하고 능에 추가로 석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세상을 뜨자 아들 단종이 문종의 현릉을 조성하고 소릉에 상설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했던 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 4. 기타석물

두 차례 발굴조사로 소릉 폐릉지에서 난간석주, 석양, 돌기둥, 지대석 등을 발굴했으나(도 17) 발굴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았다. 특히 석인은 석수보다 중요한 상설인데도 확실한 형태로 발굴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발굴된 유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탓에 앞서 언급한 3종의 석물만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경희대박물관의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나머지



도 17 소릉 폐릉지 발굴 유물, 디지털안산문화대전

지 석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석인상이다. 능묘석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무석인인데, 왕릉은 물론 세자와 세자빈의 무덤에도 꾸준히 설치했기 때문에 현덕왕후의 무덤에도 당연히 석인상을 설치했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모습의 석인상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발굴보고서에 ‘무관석의 갑주 부분’을 발견했다는 기록

만 남아 있다.<sup>52</sup> 무석인은 문석인과 달리, 陵制 상설이기 때문에 왕릉으로 추송한 후에 추가로 설치했던 석물일 것이다.

둘째는 석마이다. 조선왕릉에는 대부분 석인과 함께 석마가 排設되어 있기 때문에 국초부터 왕릉에 석마를 배설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왕릉에서 석마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세종대이다. 1441년에 세자빈 권씨 무덤을 조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석마 설치 문제가 논의되었다.

… 또 빈(嬪)의 묘에 석마를 세울 것인가 아니 세울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신개·이숙치 등은 의논하기를, “先王之 陵室에도 석인 돌, 석호 돌, 석양 돌, 망주 돌이 있고 석마가 없사오니, 이번 세자빈의 묘에도 역시 석마를 세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하연은 의논하기를, “석마는 古制에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능실에 모두 석마 돌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하고, 민의생·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원경왕후의 능에는 석인 넷, 석양 넷, 석호 넷, 석망주 돌만 있고 석마는 없으며, 貞昭公主의 묘에는 석인 돌, 석양 돌, 석호 돌만 있사오니, 이제 석마는 세우지 말고 석양과 석호 각각 하나씩을 더하게 하여, 정소공주의 墓制와 구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의 하연의 의논을 따랐다.<sup>53</sup>

이 기록을 통해 보건대, 조선 초기에는 묘는 물론 왕릉에도 석마를 세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이 하연의 의논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어, 1441년에 세자빈 권씨

<sup>52</sup> 경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 34.

<sup>53</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년) 8월 8일.



도 18 덕종 경릉 전경, 1457년, 필자 촬영

묘를 조성하면서 조선왕실에서 처음으로 석마를 설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4</sup> 경희대학교박물관 보고서에서는 몸통 부분은 파괴되어 사라지고 대석 부분만 남은 석물을 석마의 대석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석양의 대석보다 크기 때문이었다.<sup>55</sup>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자빈 권씨 무덤에 석마를 설치한 것을 계

기로 조선왕실에서는 석마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듬해인 1442년 10월 18일에 세종은 왕세자(문종)에게 명하여 도승지 趙瑞康을 불러 능실에 석마와 석호를 세우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으며,<sup>56</sup> 건원릉, 현릉, 제릉에 석마를 추가로 설치했다.<sup>57</sup> 세자빈 권씨묘를 조성하면서 석마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조선왕실에서는 왕릉뿐만 아니라 묘에도 석마를 세운다. 1457년에 조성된 조선 최초의 세자묘인 의경세자묘(현재 敬陵)도 18)에 석양, 석호, 석마를 각 한 쌍씩 세운 것은 세자빈 권씨묘를 典範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는 망주석인데, 권씨 무덤을 처음 묘제로 조성했을 당시에는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석마에 대한 논의에서 인용한 실록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정소공주의 묘에는 망주석이 설치되지 않았고 원경왕후의 능에만 망주석이 한 쌍 설치되어 있었다. 세자빈 권씨의 무덤은 왕릉과 공주묘 사이의 중간 등급으로 조성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망주석은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의경세자묘와 세자빈 한씨묘(현재 恭陵) 조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며, 현재도 두 능은 망주석이 생략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희대 발굴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8각 기둥이 망주석의 부재라면, 이는 왕릉으로 추봉 시에 추가로 설치되었던 석물일 것이다.

54 석수를 세자빈묘 조성 시에 세웠음은 석수를 배설하기 위한 터를 파며 告由한, 남수문(1408~1442)의 后土文, “將設石獸 爰始土功 祗薦潤蘋 庸告神鑑 庶諒卑懇 優借明歆”에서 알 수 있다(필자 강조), 南秀文, 〈顯德嬪墓所 主穴補土 雜象排設時 告后土文〉 『敬齋遺稿』(1804년 간행).

55 경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p. 32-33.

56 『세종실록』 권98, 24년(1442) 10월 18일.

57 『세종실록』 권17, 4년(1422) 9월 6일. 현릉 조성 당시의 산릉제도 기록에도 석마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 5. 석물 분석 정리

지금까지 소릉 폐릉지에서 발굴된 석물의 양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우선, 폐릉지에서 나온 석수와 난간석주 등은 태종 헌릉(1422년) 이후 문종 헌릉(1452년) 사이에 제작된 석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양과 석호는 태종 헌릉 석물과 유사하면서도 달라 보이는데, 이는 20년 정도의 시간 차이도 차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석물들이 세자빈묘에 설치된 묘제석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난간석주가 헌릉 석물보다는 헌릉 석물과 유사한 것은 난간석이 소릉으로 추봉된 후에 추가로 설치되었던 석물이기 때문인데, 이는 단종이 “昭陵의 雜像은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설치하라.”고 언급했던 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한다.<sup>58</sup>

추봉 후 소릉의 석물체제는 병풍석은 없고 난간석을 두른 형식이었을 것이다. 소릉의 석물 중에 난간석은 발굴되었지만 병풍석의 흔적이나 부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sup>59</sup> 조선 초기에 왕후의 능이 독립된 봉분으로 조성된 貞陵, 齊陵, 厚陵, 獻陵, 英陵에는 모두 난간석과 병풍석이 설치되었는데, 소릉은 이러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병풍석을 생략한 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세조가 자신의 능에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설치하는 능 형식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려는 생각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이상으로, 소릉 석물로 구전되던 석물을 분석한 결과 이 석물들이 소릉 석물이 분명하며 따라서 안산의 폐릉지는 현덕왕후의 소릉터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아울러 무덤에 설치된 석물들의 제작시기를 추정함으로써 조선 초기에 세자와 세자빈의 무덤을 어떠한 형식으로 조성하였는지도 밝힐 수 있었다. 왕릉보다는 낮추고 공주묘보다는 높이는 세자빈 권씨의 무덤 체제는 의경세자묘와 세자빈 한씨묘의 典範이 되었고,<sup>60</sup> 이후 조선왕실의 園制로 정착되었다.

<sup>58</sup> 『단종실록』 권3, 즉위년(1452년) 9월 21일.

<sup>59</sup> 경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 29.

<sup>60</sup> 『세조실록』 권26, 7년(1461년) 12월 6일. 세조 7년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韓氏)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졸하자, 좌찬성 황수신(黃守身),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 참판 조효문(曹孝門)이 승지와 더불어 왕세자빈의 상장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유년 현덕빈(顯德嬪)의 상장의 여러 가지 일은 원경왕후보다는 내리고 정소공주보다는 1등을 더하였는데, 이제 왕세자빈의 상장은 한결같이 이 예(禮)에 의하여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IV. 맺음말

조선왕릉 42기의 능은 태조 건원릉부터 일관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국초에 이미 조선왕실의 무덤 체제가 완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례의와 마찬가지로 석물을 비롯한 왕실 무덤의 체제도 서서히 정비된 것이다. 현덕 왕후의 무덤은 세종이 상장례의 규범을 만들어가던 시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을 통해 조선왕실의 상장례가 어떻게 규범화되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자빈 권씨묘는 조선의 園制에 해당하는 최초의 무덤이다. 정소공주의 묘제에 석마 한 쌍을 더하여 석양, 석호, 석마를 각 한 쌍씩 배설했던 권씨의 무덤은 최초의 세자빈묘로서, 이는 조선왕실의 묘제와 구별되는 무덤 형식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최초의 세자묘인 의경세자묘는 물론 세자빈 한씨묘를 조성할 때도 전범으로 계승되어 점차 원제로 정착되었다.

둘째, 세자빈 권씨묘는 조선왕릉이 고려왕릉과는 다른 체제로 전환 되던 시점에 조성되었다. 고려왕릉에는 배설되지 않았던 석마가 조선왕릉에는 등장하는데, 바로 세자빈 권씨묘를 조성하면서 古制를 상고하여 석마를 설치하게 된다. 세종은 하연의 주장에 따라 세자빈묘에 석마를 처음 설치했으며, 그 이듬해인 1442년(세종 24년) 10월 18일 왕세자에게 명하여 陵室에 석마와 석호를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4년 후인 1446년(세종 28년)에 昭憲王后(1395~1446) 英陵에 석마를 설치함으로써 석마는 조선왕릉의 상례적인 석물로 정착되었다.<sup>61</sup>

셋째, 소릉으로 추봉되었을 때 어떠한 석물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석물 분석을 통해 병풍석 없이 난간석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릉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된 조선 최초의 능인 셈인데, 따라서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조성된 최초의 왕릉이 세조 광릉이라는 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릉은 조선왕실에서 葬穴의 깊이를 정하고 부장품에 금이나 은을 장식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만든 계기가 되었던 무덤이기도 하다. 현덕왕후 무덤을 조성하면서 장혈을 3미터 정도에 달하는 營造尺 1丈을 파게 하였고 이를 오례의 규범으로 삼았다.<sup>62</sup> 특히 세종은 무덤 속에 “銷金이나 銷銀이라도 일체 다 금지하고 영구한 恒式으로 삼으라.”

<sup>61</sup> 『세종실록』 권112, 28년(1446년) 5월 8일.

<sup>62</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 8월 20일.

고 하여<sup>63</sup> 무덤에 값비싼 부장품을 넣지 말도록 한 덕분에 42기의 능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릉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고유한 능원묘 체제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무덤임을 입증했다. 왕릉의 석물은 현존하는 무덤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진 무덤에 대해서도 중요한 연구 단서를 제공하며, 또한 석물을 통해 무덤 변경의 역사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더 이상 소릉터 발굴이 쉽지 않아 추가로 석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현존하는 유물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산향토사박물관 잔디밭에 놓여있는 석양이 발굴 이후에 훼손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보다 안전한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제어(Key Words)\_조선왕릉(朝鮮王陵,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현덕왕후(顯德王后, Queen Hyeondeok), 소릉(昭陵, Soreung), 현릉(顯陵, Hyeolleung), 왕릉석물(王陵石物, Royal Tomb Sculpture)

■ 투고일 2014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4년 12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22일 ■

---

<sup>63</sup> 『세종실록』 권93, 23년(1441) 8월 11일.

## 참고문헌

『敬齋遺稿』, 1804.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 安山市史編纂委員會, 2011.

『연려실기술』 제4권, 〈문종조 고사본말(文宗朝故事本末)〉, 소릉(昭陵)의 폐위와 복위

『조선왕조실록』

『해동야언』

경희대학교박물관, 『현덕왕후 폐릉지 발굴조사보고서』, 1982.

정영호, 「목내리산성 발굴조사보고(단국대학교)」, 『반월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반월지구 유적발굴 조사단, 1978.

강우방, 「이대박물관 소장 돌 호랑이의 매력」, 『우리 옛 돌조각의 힘: 이화조각정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7, pp. 17-23.

김이순,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미술사학보』 31, 2008, pp. 63-100.

\_\_\_\_\_,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32.1, 2009, pp. 155-190.

\_\_\_\_\_, 「『세종실록』의 후릉(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6.1, 2013, pp. 91-117.

이현진, 「조선전기 昭陵復位論의 추이와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23, 2002, pp. 49-83.

진홍섭, 「昭陵石虎」, 『예림』 I, 이화여자대학교, 1968, pp. 34-3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http://www.grandculture.net)

## 국문초록

조선 제5대 왕인 문종의 비이자 제6대 왕인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세자빈의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墓制로 무덤이 조성되었다가 문종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소릉으로 추봉되었다. 그러나 단종 복위 사건으로 현덕왕후는 폐서인되면서 소릉은 폐위되고 改葬되었다가, 56년 후에 다시 왕후로 복위되고 무덤은 문종의 현릉과 同原異岡陵 형식으로 새로 조성되었다.

안산에 위치한 소릉의 폐릉지는 현재 능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 위치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소릉 석물로 전해지는 석물들 중에서 대표적 석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석호 한 쌍과 안산시향토사박물관에 소장된 석양과 난간석주를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석물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석호는 정식 발굴과정을 거치지 않고 골동상에 의해 유통된 석물로, 그 귀속에 논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석호와 더불어 폐릉지에서 발굴한 석양과 난간석주가 현덕왕후 초장지의 석물임을 밝혔다. 특히 석호와 석양은 세자빈 묘를 조성할 때 설치했던 석물이고, 난간석주는 왕릉으로 추봉할 때 추가로 설치했던 석물임을 논증했다. 그리고 난간석주의 분석을 통해 소릉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따라서 조선 왕릉에서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른 최초의 왕릉은 세조 광릉이 아니라 소릉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최초의 세자빈 무덤이었던 세자빈 권씨의 무덤은 능보다는 낮추고 묘보다는 높이는 형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체제는 의경세자묘의 형식으로 계승되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능제와 묘제의 중간 등급인 園制로 정착했다. 결국 현덕왕후의 무덤은 조선의 고유한 능묘 체제 형성에 중간 고리 역할을 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아울러 조선왕실 무덤에서 석마를 최초로 세운 무덤이라는 사실을 통해,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어떻게 왕실 무덤을 다른 무덤과 차별화하면서 체제 화시켜나갔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소릉은 현재 기록으로만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몇 점의 석물을 통해 소릉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었고, 조선왕릉 석물의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

## Tomb Sculptures at Queen Hyeondeok's Soreung

**Kim Yisoon** \*

Queen Hyeondeok (1418-1441) was the consort of King Munjong (r. 1450-1452), the fif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other of the sixth king, Danjong. Having died as a crown princess, her tomb was initially built according to ordinary funerary custom, and as King Munjong ascended to the throne, her tomb was bestowed the title of Soreung. However, the failed attempt to restore King Danjong in 1453 resulted in the abolishment of Queen Hyeondeok's status as queen, along with Soreung, and her remains were moved to a different location. After 56 years, her title was restored, and her tomb was newly constructed as a separate burial mound alongside the tomb of her husband in the same compound.

No trace of the royal tomb is found at the site where Soreung once stood in Ansan, and its location has been passed on solely through oral transmission. Of the tomb sculptures of the Soreung, the most notable are two stone tigers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and a stone sheep and a stone pillar of banister in the Ansan Local History Museum, which are the subjects of this paper. The stone tigers were acquired not through excavation but from an antique dealer, which led to controversy on the ownership.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tone sheep and the pillar, along with the stone tigers, originated from the initial tomb site of Queen Hyeondeok. It argues that the stone sheep and the tigers were installed at the tomb of the crown princess, and the stone pillars were established additionally after the tomb was elevated as a royal tomb. The analysis of stone pillars of the banister proves that there were no broad, square-shaped stones installed for protecting the tomb but only the stone pillars and banister. This supports that the very first royal tomb with no square-shaped stones but only

---

\* Associate Professor, Hongik University

with the pillars and a banister is not King Sejo's Gwangneung but rather the Soreung.

The tomb of Crown Princess Gwon, the first tomb for a crown princess in the Joseon Dynasty, was built to be lower than a tomb for a king or queen but higher than that of an ordinary princess, a style that was used for the tomb of Crown Prince Uigyeong before being settled as a hill-sized tomb as a compromise between a royal tomb and an ordinary grave. In the end, this paper proved that the tomb of Queen Hyeondeok served as a medium in the formation of the unique tomb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Soreung is the first example of the Joseon royal tombs to be decorated with stone horses, which implies that the early Joseon Dynasty made effort to systemize the tomb system by differentiating the royal tomb from other graves. Soreung now exists only in historical record, yet a number of remaining sculptures allowed this paper to determine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Soreung, and shed light on the value of the stone sculpture of the Joseon Dynasty.